

<가출소동,수다가 수(手)다>

- ▣ 연출 및 지도 : 오지나
- ▣ 출연자 : 조현경, 이미화, 김행화, 김태은, 조은영, 조형란, 김명순, 김정진
- ▣ 등장인물 : 입술1,2,3,4, 학생, 이줌마, 노인

▣ 프롤로그

비행기 승무원같은 복장의 사람이 나와 코로나수칙에 대해 설명한다.
목소리 안내방송에 맞춰 동작을 진행.

안내방송 :놀래 축제 저희 어수선 공연을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
지금부터 공연관람을 위해 비행모드로 전환해 주시거나 음소거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 공연이 10분내외로 끝나기 때문에 중요장면을 놓치면 극의 이해에 심각한 오류가 생길 수 있으므로 빨리 다녀오시기 바랍니다. 준비된 간식이나 음료는 마음껏 섭취가능하시며 보시는 중간중간 어느때라도 양손 엄지를 이용해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▣ #1

- 1) 집에서 하루는 보내는 엄마
-코로나로 장도 배달로, 운동도 집에서, 24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엄마
- 2)아이들 카톡으로 사사로이 떠드는 모습

- 핸드폰 영상이 비치고 아이들은 옆에 앉아서도 톡으로 떠든다
- 톡으로 뭐 먹을지 고르는 아이들 다 고르면 옆자리에서 일어나 같이 나간다 나가서도 톡으로 대화
- 3)현대사회의 모습에 갈길을 잃은 예술강사
 - 사람들을 싫어하는 예술가, 하루종일 집안에서 온라인으로만 작업한다.
- 4)고스톱 치는 노인
 - 뭔가 신나게 고스톱을 치는 노인, 간간히 욕설이 섞인다.

▣ #2 가출

어두운 방안에 입술들이 모여있다. 다들 무슨일인지 심각한 표정들이다.

입술 1 : 더 이상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

입술 2 : 나도 동의하는 바야

입술 3 : 그래도 우리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

입술 4 : 넌 그게 걱정이나 사람들은 우리가 사라져도 아무런 불편이 없이 잘 살 겉

입술 1 : 그래. 집에 같이 있어도 말 한마디를 안해

입술 2 : 집에서만? 나의 나는 학교수업도 온라인 아이들하고 이야기도 다 톡으 로 한다구

입술 4 : 내 주인은 종일 하는 말이라고는 욕설뿐이야. 그리고 더 이상은 눈과 손에게 멸시받으며 얼굴에 머물고 싶지 않아

입술 2 : 맞아 하루이틀도 아니고 특히 손은 "왜 우리가 입술의 일까지도 맡아 해야하는 거야 아! 피곤해 이러는거 있지?!" 점점 더 우릴 무시하고 있다 구

입술 1 : 자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때야.

입술 3 : 무슨 결정은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좀 더 고민해보고....

다들 비장하다.

입술 2 : 우리 인간들한테서 벗어나자구 다 인간들한테서 가출하자
입술들 : 가출하자

속 보 : 속보입니다. 지금 도시곳곳에 입을 잃은 사람들이 속출하고
있습니다. 더 이상 대화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필요성
이 없어진 입술들이 인 간들을 떠나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입
단속 잘하시고 음읍음

자막처리

▣ #3 사람 VS 입술

사람들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왔다. 그에 반대편에 입술들이 등장에 대
치한다.

입술 2 : 뭐야 뭐. 우리 필요없어서 내팽겨쳐놓댄 언제고.. 이제와서

입술 1 : 왜 없으니까 아쉬워?

인간들 뭐라뭐라 몸으로 열심히 어필을 한다.

입술 4 : 뭐라는겨? 제대로 말을 혀 어디 싸가지없이 들이밀어 젊은
것이

입술 3 : 저긴 입술이 없잖아요. (보더니)

입술 2 : 됐어 됐어. 니들은 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. 손만 있으면 폰
으로 컴으 로 다 해결되는거잖어. 우리는 필요없어졌으니 알

아서 사라져주겠다는 데 왜 이렇게 난리야

입술 1 : 자자 각설하고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밝힌거 같으니 이만 헤
어집시다

인간들 카톡으로 문자를 보낸다. 문자를 받은 입술들은 카톡을 읽는다

입술 1 : “엄밀히 이야기하자면 너희의 소속은 여기 사람들이야 누구맘
대로 우리 한테서 독립한다는 거지?” 참나 지금 논리적으로
나랑 붙어보자는 건 가? 어차피 당신 인간들이 입술을 사용
하지 않으면 생태적으로 퇴화되 어서 언젠가는 입술은 없어
지고 말거야 우린 그때를 기다리지 않고 알아 서 사라지겠다
는 거지

입술 2 : (카톡)“물론 입술이 없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지. 하지만 얼
굴의 균형 미가 떨어지잖아 그리고 지금 사논 내 립스틱들은
어쩌구” 와! 지금 얼 굴의 균형미를 이야기하냐 이시점에서
걱정되는게 얼굴의 균형미야?

입술 4 : (문자)“니미럴... 하여튼 저 주둥아리들이 항상 문제여 문제”
머여 주둥 아리?! 진짜 저 할매가 허구헌날 이 고운입으로
값어치 떨어지게 욕이 나 허구말야 하여튼 말이 안통해

인간들은 몸짓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대신한다

입술 1 : 야! 입술 3, 저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? 해석 좀 해봐

입술 3 : (인간 3이 반갑다) 어라 나다! 안녕(주변의 눈초리에 깨갱)“사
실 난 입 술이 문제라고 생각해 그 세치 혀로 남을 함부로
판단하고 상처주고... 그럴바엔 없어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
각..... 해...” 정말 그렇게 생각해? 알았어 애들아 우리 가자

입술들이 나가려하자 인간들이 앞을 막고 선다. 인간들과 입술들은 맞
짱을 뜨는 분위기로 가고

▣ #4 게임

입술 1 : 좋아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. 그럼 내기로

양 팀은 줄넘기로 승패를 가르기로 하고 연습을 진행한다. 인간들은 카
톡으로 연습진행을 하고 입술들은 말로 의견을 수렴한다. 줄넘기 시합
이 진행이 되면 입술들은 말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격려한다 입술들의

승리

▣ #5 속사정

입술 2 : 잘있어라 우린 이제 떠난다

입술들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나온 학생은 앞으로 나와 카톡으로 말을 전달하던 학생은 감정이 격해지자 입술을 공격하고 몸으로 무언가를 어필한다.

입술 1 : 뭐라는 거야? 너 나 필요없잖아 옆에 있는 친구랑 말할 때도
톡하는게 너희들 아냐?! 넌 손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

입술 3 : 그래도 마지막으로 무슨 말인지 들어나 보자

입술 4 : 엠병 떠나는 마당에 구질구질하긴

입술 1이 학생에게 다가가 뽀뽀를 하면 입술이 열리고 말을 한다

학 생 : 학교 끝나면 학원, 학원 마치면 숙제, 그나마 요샌 수업도 온
라인이라 친구도 못만나 우린 뭐 온라인 친구가 마냥 맘
에 드는 줄 알아

인간들 서로서로 먼저 말하려고 한다. 뜨악하게 바라보는 입술들. 갑자기 다가간 아줌마는 갑자기 입술에 입맞춤하고 입이 트인다.

아줌마 : 나도 할 말 많아. 우리 딸은 수험생이라 날카롭지 무슨 말만
걸면 칼을 들고 덤비는 것 같단 말야 그러니 어째 무서워서
밥먹으란 말도 톡으로 해. 그리고 우리 남편?! “이봐 당신,
하는 일도 없으면서 괜히 싸돌아다니지 말어. 그러다가 만
에하나 코로나 걸려봐 그럼 나도 걸리지 나 걸 리면 회사사람들한테
전염되지 그러면 회사생활 막장되지 그럼 내가 회사 못다니겠지?! 그럼
우리집 밥줄 다 끊어지는 거야 무슨말인지 알지? 잘 알아들었으리라
생각해. 절대 절대 집에만 콕 알았어?” 이러는데 장사있어? 나라고 집

안에 갇혀서 살고 싶냐구

입술 2 : 진작... 말을 하지. 왜 그렇게 입을 꼭 닫고...

노 인 : (입술을 뺏치고) 나나나! 나도 할말 많아. 내가 괜히 혼자 앉아서 고스톱만 치는 줄 알아?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걸어. 지금 이 시국에 어딜 돌아다닐수나 있나 그렇다고 하루종일 폰만 보고 기다려도 애들도 먹고살기 바빠서 전화한통 없고 해도 맨날 물어보는게 밥은 먹었냐구 레파토리가 똑같아 내가 뭐 말이라도 할라치면 애들 핑계에 일 핑계로 끊어버리고 이젠 나이 먹어서 말하는 법도 까먹을라그래 그래서 종일 고스톱 붙들고 앉아 있는거여 니미럴거 알도 못하는 것들이 사람 복장 휘집고 지랄들여 허이고 근데말여...

다들 무슨말인가하고 쳐다본다.

노 인 : 이렇게 풀어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긴 허다. 자네들도 그렇지?!

다들 수공의 리액션

아줌마 : 맞아요 이렇게 말로 하소연하고 나니 가슴에 맺혀있던거 같은 채증이 흑하고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이럴 줄 알았으면 거울보고라도 하소연 할걸

학 생 : 저두요. 뭔가 여기서사람들이랑 디게 친해진 기분?! 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입술 너희들 소중함을 알았으니까 안가면 안돼

입술 1 : 뭐.... 우리도 들어보니 그럴만 했던 생각이 들긴하네

입술 2 : 우리가 꼭 필요하다니 뭐...

입술 4 : 난 떠날 맘이 있었던 건 아니고

입술 3은 사람 3에게 다가간다.

입술 3 : 니가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걸 알아. 가끔 아무 생

각없이 던진 말이 나에게 비수가 되기도 하지. 다시 사람들 앞에 서기가 무서울 거야. 그런데 그 상처 치료하지 않으면 넌 영원히 외로워질 거야. 그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은 말야 사람이야 사람의 위로만이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어 용기를 내서 나와봐. 여기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.

학 생 : 맞아요 또 누가 욕하면 우리에게 말해요

노 인 : 그러 누가 뭐라면 나한테 말혀 내가 그냥 뼈~~~~~

입술 4가 입을 막는다. 다같이 웃으며

▣ 에필로그

아이들 입이 클로즈업되어서 가족들에 대한 고백이 진행된다.